

社會變遷과 아노미

金 東

首席研究員, Ph.D. (社會學)

- I. 社會變遷과 社會問題
- II. 產業化에 따른 社會變遷이 人間에 주는 영향과 그에 대한 대책
- III. 綜合的 社會發展과 문제점

I. 社會變遷과 社會問題

現代社會에서 開發途上國家들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傳統的 農耕社會에서 탈피하여 產業社會를 건설함으로써 經濟的인 貧困을 극복하고 豐饒한 社會를 이루하는 것이라 하겠다. 물론 최근에 와서 학자들 사이에 先進都市產業國에서 物質的인 豐饒를 향락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人類의 궁극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發展」의 目標일 수가 있겠느냐 하는 反省이 없는 것은 아니나, 세계가 특히 農耕國家가 工業國家로, 傳統社會가 產業社會로 출발을 치는 현상은 보편적인 사실이다. 社會發展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論難이 많으나, 產業化 또는 近代化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一考해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 같다.

우리는 흔히 產業化라는 말을 近代化와 同意語로 쓰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近代化라는 말은 產業化라는 말보다도 훨씬 광범위한 內容의 것이다. 近代化라는 어휘가 社會組織의 변화를

말하느냐, 아니면 社會構成員의 태도나 자세의 변화를 의미하느냐에 관해서는 아직도 異議가 많지만, 筆者는 社會構造論의 측면에서 볼 때近代化의 의미가 무엇인가 간략하게 살펴보고,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을 살펴 나가고자 한다.

國家내지 社會의近代化라는 어휘는 적어도 세 가지의 社會組織의變化를 의미한다. 하나는 產業化라는 것이요, 또 하나는 都市化라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官僚化라는 것이다. 따라서近代化(modernization)라는 말을 이해하는데는 이 세 가지의 과정, 즉 產業化(industrialization), 都市化(urbanization) 및 官僚化(bureaucratization)를 동시에 생각해야 하고, 이 세 가지가 왜 연관성을 유지하면서 변천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產業化와 都市化의 相關關係는 아직도 확실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 人類學者들은 文明(civilization)의 발상이 文字의 發明과 都市의 形成에 있다고 봄으로써 都市化가 產業化에 先行한다는데 일반적으로 見解를 같이하고 있으나¹, 產業化와 都市化가 깊은 相關關係를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거의 병행해서 일어난다고 보는데 큰 異議는 없는 것 같다. 그것도 그럴 것이, 產業化란 어느 社會가 1次產業爲主의 경제 체제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따

라서 農業生產者는 상대적으로 높고 工業 및 商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都市中心으로 늘어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라 產業化와 都市化는 不可分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

社會가 傳統農耕社會에서 都市中心의 產業社會로 옮겨 갈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다. 가장 代表的인 문제점으로 학자들의 관심을 끌어온 것은

첫째, 產業社會화하면서 급속해지는 社會變遷이 人間에게 미치는 영향이고

둘째, 社會機能의 分化와 多樣化 및 社會構成員들의 異質化는 社會統合이라는 과제를 점점 어렵고 복잡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社會가 급격히 變遷해 가는 과정에서는 無秩序와 混同과 不安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의 경우만은 아니고 先進產業國들도 일찌기 겪은 過程이며, 또 현재도 많은 後進國들이 경험하는 과정이다. 資本主義의 經濟體制下에서 사회가 급속히 都市化하고 產業化할 때 생기는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社會組織內部의 모든 部門이 동시에 均衡을 이루며 발전하지 못한다는 데서 생겨나는 문제들이다. 社會內部 各 部門間의 불균형의 예를 들면, 高度經濟成長을 목표로 하고 급속히 產業化되어 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제일 먼저 產業間의 不均衡을 들 수 있겠다. 이와 관련해서 생기는 불균형은 地域間의 所得隔差, 都農間의 不均等, 그리고 社會階層이나 年齡別 또는 性別에 따른 社會不平等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不均衡은 급격히 변하는 社會變遷 자체가 人間에게 주는 영향과 더불어 많은 社會問題들의 원천이 될 수 있다.

安定이냐 成長이냐 하는 문제에 관한 學者들의 논란은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는데, 이것은

이른바 均衡된 發展 또는 安定 속의 發展이 현실적으로 制約을 받기 때문인 것 같다. 현실적인 制約의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 市場經濟中心의 資本主義制의 特수성에서 오는 것, 또는 GNP 成長 중심의 國家經濟力의 擴大를 통한 經濟的 自立化와 近代化를 하루 속히 달성하자는 政策決定者들의 강한 執念, 그리고 經濟為主의 自立化와 近代化를 요구하는 外的要因, 즉 安保問題(national security) 등을 들 수 있겠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制約 속에서도 產業化와 經濟成長為主에서 파생되는 產業間 또는 地域間의 隔差를 너무 방치해 두면, 이것은 나중에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해결하는데 至大한 노력이 요구되어 社會的, 經濟的 不安의 要素가 된다.

產業化, 都市化에 따른 급격한 社會變遷과 社會分化(social differentiation)에 따른 社會混亂과 無秩序를 방지하는 것은 심각하고도 어려운 문제라고 이미 지적했지만, 分化에 따른 統合(integration)의 문제는 國家나 社會의 生存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近代產業社會의 발생과 함께 國家의 社會統制機能이 擴大되어 왔고, 이에 수반하는 官僚組織의 강화 및 張창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며, 여기에 社會組織의 官僚化(bureaucratization of social organization)가近代化過程의 三大要素의 하나로 등장하는 이유가 있다 하겠다. 다시 말해서 都市化와 產業化가 社會組織과 機能의 多角化 및 分化를 가져오는 것이라면, 官僚化는 統合을 유지하는데 필연적인 것으로 볼 수 있겠다.

社會의 官僚化라는 현상의 當爲性은 統合의機能이라는 점에서 일단 인정되나,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으니, 그것은 統合을 위해 요구되는 官僚化的 정도가 어느 정도이어야 하

는 것이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지나친 官僚化가 오히려 統合을 저해하는 요소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官僚組織의 가장 典型的인 模型으로서 軍隊組織을 들 수 있는데, 평상시에는 官僚主義에 입각한 지휘통솔이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나 일단 유사시(예로서 전쟁이 돌발했을 때) 죽음을 앞에 두 战場터에선 지나친 관료주의적 지도력이 병정들의 통합을 위해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됨을 일찌기 社會學者들이 체계있게 밝혀낸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 官僚主義的 指導力(bureaucratic leadership)이 地域社會開發에 미치는 영향도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겠으나, 이 문제는 뒤로 미루고 우선 社會變천 및 分化가 人間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產業化에 따른 社會變遷이 人間에게 주는 영향과 그에 대한 對策

종래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롭고, 不確實하며 不透明한 現狀에 당면했을 때 주저하거나 이를 회피하려는 경향은 人間 모두의 共通된 성격이다. 이러한 경향은 이따금 급격한 社會變遷에 저항하는 힘의 바탕이 되고, 동시에 傳統을 사랑하고 變化를 싫어하는 保守主義思想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그도 그럴 것이 人間社會 또는 社會體系(social system)의 본질이 바로 습관적이고 지속적인 交互作用의 類型化 내지 標準化에 있고, 이것은 곧 社會組織의 安定性(stability)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個人이나 集團 또는 組織이 社會의 安定性에 위협을 주는 행동을 할 때, 이것은 사회조직의 밑바탕을 이루는 價值觀과 規範에 의해 일정한 제재

를 받게 된다. 그런가 하면, 社會가 그의 內的要因들이나 혹은 外的要因들의 변화에 의해 잠자기 변화하게 될 때 既存價值體系가 무너질 수 있고, 동시에 社會의 安定性이 깨어져서 이러한 狀況에 빠진 人間은 混同과 不確實 속에서 혼매 이게 된다.

급격한 社會變遷이 社會組織이나 人間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연구 발표는 수없이 많다. 어떤 학자들은 급격한 사회변천은 정신병환자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했고³, 혹자는 社會變遷에 따르는 社會의 不安과 그것이 個人에게 미치는 不安全感이나 離脫行爲의 발생 등을 조사 발표했고⁴, 또 다른 社會學者は 좀더 구체적으로 사회변천이 人間의 疏外(alienation)와 아노미(anomie)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간파했다.⁵ 예를 들면 社會學者 아이恩施타트(Eisenstadt)는 그의 1966年著書에서, 일찌기 西歐社會가 경험했던, 또는 현재 開發途上國家들이 경험하고 있는 都市化와 產業化는 農村社會의 傳統的基盤을 여지없이 깨뜨리고, 따라서 農村에 사는 農民이나 都市로 밀려 온 勞動者들은 이러한 產業國을 향한 과도기에 그들이 종래 누려오던 平溫과 安定感을 상실한채 不安하고 目的을 잃은 生活을 영위해야 하는 狀況을 잘 묘사하고 있다.⁶

1. 뒤르켕의 아노미論

Social變遷에 관한 理論은 社會學內에서도 여러 개의 學派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겠으나, 紙面의 制約上, 이 論文에서는 19세기 말~20세기 초의 불란서 社會學者 에밀 뒤르켕(Emile Durkheim)의 古典的이면서도 現代社會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社會進化論의(social evolutionary) 입장의 社會變遷論을 소개하고, 高度產業化

에 따른 사회문제 및 그에 대한 對應策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西歐社會가 봉건적 전통사회에서 近代產業社會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살았던 뒤르켕은 갑작스럽고 급격한 變遷의 와중 속에서 西歐社會가 당면했던 심각한 社會問題들을 지적하고, 이 문제들을 그가 정립한 개념, 즉 아노미(anomie)理論에 의해 설명하였다. 뒤르켕은 그 당시의 갑작스런 사회변천의 원인이 英國에서 시작해서 유럽 전역으로 파급된 產業革命과, 미국과 블란서에서 폭발한 民主市民革命에 있다고 보고, 이 두 개의 역사적인 사건들이 급격한 사회변천을 가져와 傳統的인 西歐의 價值와 規範들을 뒤엎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전통적인 價值와 規範의 衰失과 더불어 기존의 社會組織과 權威도 붕괴되고 세계는 바야흐로 새로운 時代를 향해 출발음치고 있다고 그는 생각했다.⁷

이와 같은 社會現狀을 설명하기 위해 뒤르켕은 社會進化論의 立場에서, 그 당시 西歐社會가 機械的 連帶(mechanic solidarity)의 社會에서 有機的 連帶(organic solidarity)의 社會로 흘러가는 과도기에 있다고 규정했다.⁸ 機械的 連帶의 社會를 한 마디로 규정하면, 그것은 組織面에서 勞動의 分業(division of labor)이 단순하고, 社會構成員의 同質性(homogeneity)이 뚜렷한 사회이다. 이러한 社會組織은 그 저류에 흐르는 價值觀과 規範이 확고부동해서 社會構成員들의 行動이 획일적이고 동질적이고, 따라서 社會의 變化가 적고 정체적인 성격을 띤다. 이러한 社會에서는 個性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集團이 個人에 우선하므로 한 個人이 集團의 規範을 깨뜨릴 때 엄중한 刑罰을 받게 된다. 그러나 社會의 人口가 증대하고 그것의 構造가

복잡해지면, 分業의 多樣化가 생기고 이러한 機能的 多樣化(functional differentiation)는 社會構成員의 異質性(heterogeneity)을 초래한다. 이러한 현상은 社會가 단순한 傳統社會에서 近代社會로, 農業社會에서 工業社會로 옮겨 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인데, 傳統社會가 붕괴되고, 그것의 기반이었던 社會구성원의 同質性을 바탕으로 한 價值體系와 規範이 社會구성원의 異質性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價值體系와 規範에 의해 대치되어 產業社會가 完成될 때 그 社會는 유기적 연대의 社會로 등장한다.

문제는 傳統的인 農業社會가 產業社會로 넘어갈 때의 過度期에서 생기는 社會적 혼란을 어떻게 빨리 해결하고, 종래의 기계적 연대를 대치하는 유기적 연대가 어떻게 성취되느냐에 있다. 다시 말해서, 近代產業社會가 生成될 때 그것에 맞는 規範과 價值體系를 어떻게 빨리 수립하느냐에 에밀 뒤르켕은 그의 학문적인 심혈을 기울였다. 그는 위에서 지적한 社會변천의 과도기에 일어나는 混亂狀態를 아노미라고 불렀는데, 아노미적 상태(anomic situation)에 對한 人間은 目的意識과 方向感覺 또는 規範意識을 상실한 채 침울해지고 悲觀하여 社會의 連帶感을 상실하게 된다. 이것의 극단적인 예를 뒤르켕은 아노미的 自殺(anomic suicide)에서 찾았는데, 이것은 급격한 社會변천이 인간에게 주는 영향을 理論的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科學的方法論 및 調查에 입각한 경험론적인 측면에서 지적하기 위한 것이었다.⁹

現代社會學者들 간에 아노미의 定義를 어떻게 규명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論難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뒤르켕 자신도 이 어휘를 희랍어에서 빌려 왔는데 文字 그대로의 뜻은 無秩序(orderlessness), 無法(lawlessness) 또는 無

規範(normlessness)이라는 뜻이나, 실제 토는 급격한 사회변천에 따라 전통적 가치체계와 규범에 변화가 올 때 일어나는 과도기적 混同狀態를 가르키는 말이다.

2. 아노미 救濟策

그러면 위에서 지적한 아노미의 解決策은 무엇이겠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人間의 歷史를必然으로 보느냐, 아니면 自由意志의 所產으로 보느냐 하는 哲學的인 觀點에 따라 영향을 받겠지만, 뒤르켕은 中立的인 立場을 취하고 아노미 救濟策을 國民教育을 통한 道德的 權威(moral authority)의 재정립에서 찾으려 했다.¹⁰ 教育을 통한 道德的 權威의 수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접어들어서는 뒤르켕도 후에 뭔가 悲觀的인 見解를 취하고 말지만, 그가 주장했던 새 道德律의 수립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는 社會學徒로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것 같다.

뒤르켕의 아노미論과 그의 구체책을 보다 깊이理解하기 위해서는 그의 思想과 그것의 哲學的 背境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비록 그가 經驗論的인 社會現實을 科學的인 方法에 입각해서 斷明하겠다고 노력했지만 그는 결코 보다 광범위한 哲學的인 문제를 무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哲學이 해결하지 못한 人間과 社會의 本質을 社會學에서 찾으려 했기 때문이다.

뒤르켕의 아노미 구제론은 19세기 말 당시 西歐社會를 휩쓸고 있던 두 개의 社會思想을 비판하는데서 시작한다. 이 중의 하나는 功利主義的 哲學(utilitarian philosophy)에 입각한 政治經濟學派(potitical economy)의 思想이고, 또 하나는 觀念論에 기반을 둔 總體主義(idealistic holism)의 社會思想이었다.

그 당시 觀念的 總體主義를 代表하는 학자로서는 불란서의 社會學의 元祖라고 불리우는 콩트(Comte)와 독일의 社會思想家 쉐몰러(Schmöller) 및 쇄플(Schaeffle)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思想의 共通된 點은 人間社會의 進化에 가장 중요한 推進力を 부여하는 것은 道德的 理念이라고 하는데 있다. 뒤르켕에 의하면, 이 社會思想은 功利主義나 政治經濟學派의 理論보다 나은 점이 있다는 것이다. 즉, 첫째로 功利主義의 哲學이 人間을 歷史 밖에 놓고 利己主義의이고 實利的인 行動만을 추구한다고 보는데 반해 人間의 歷史性을 강조한다는 점이며, 둘째로 觀念的 總體主義論者들은 社會를 하나의 單一體으로 보고, 그것의 簿性은 個個人의 個性에歸一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점에서 個個人이 전부라고 보는 功利主義者보다 생각이 앞섰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이 單一體(unity)의 本質은 道德律이고, 이 道德的 理念은 社會의 발전과 아울러 進化해 온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뒤르켕은 功利的 個人主義도 社會理論으로서의妥當性이 있는데, 그것의 장점은 人類의 歷史가 발전하면서 集團主義的인 社會組織에서 脫皮하고 個人的 尊嚴性과 權威가 점점 重大視되어 온 사회의 变천을 잘 반영해 주는데 있다. 단지 人間을 자기 個個人의 利益만을 추구하는 利己的 動物로 규정함으로써 社會의 存在自體를 부정하는 논리적 모순을 내포한 것이 功利主義의 弱點이라고 뒤르켕은 주장한다. 이러한 功利主義의 弱點을 잘 이해하고 社會는 個人에 우위하는 그 자체의 특성을 가진 單一體로서 個個人의 人生觀을 초월하는 道德律을 바탕으로 한 獨自의 存在라고 보는데 觀念論者들의 장점이 인정되나, 한편 이들은 너무 全體性만을 강조한 나머지 歷史의 흐름과 함께 社會의 性格

또한 변천해 왔음을 간과했다고 뒤르켕은 비판한다. 따라서 그의立場은 이 둘의 어느 극단도 택하지 않고 中道的인 입장에서 이 두개의 상충하는 社會思想을 統合함으로써 近代產業社會의 문제점 즉 아노미의 해결책을 구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면 뒤르켕이 주장하는 새로운 道德律의 性格은 어떠한 것일까? 그는 먼저 道德의 役割에 대해서 칸트와 同議한다. 즉 칸트에 의하면 道德律은 絶對的이고 義務的인 性格을 띠는데 뒤르켕 또한 義務性이 도덕율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규정한다. 이점은 功利主義者들 사이에 完全히 무시된 점이라고 그는 지적하고, 道德的 善은 個人的 最大滿足만에서 찾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칸트에 한편으론 동의하면서 한편으론 비판적 자세를 취했다. 그는 칸트가 얘기하는 도덕율의 義務性에는 동조하면서도 絶對性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칸트에 의하면 人間의 良心을 지배하는 道德律은 人間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뒤르켕은 그것이 어떤 絶對者나 우주의 본질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고 人間社會에서 그들의相互交互作用을 통해 자연발생한 것이라 규정한다. 여기에서 뒤르켕의 社會學은 強한 人間主義的인 性格을 나타낸다. 그러나 그의 人間主義的 社會學은 그가 정립한 개념 중에서 새로운 道德律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道德的 個人主義(moral individualism)」라는 用語에 잘 표현되고 있다. 道德的 個人主義란 傳統的인 宗敎나 集團主義의 規範이 붕괴하면서 個人的 존엄성과 독자성을 충분히 인정하는 새로운 社會秩序의 기반이 되는 價值觀을 두고 말한다. 이러한 道德的 個人主義는 個人的 권위와 존엄성을 인정하고, 새로운 社會組織은 個個人의 자

질과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게 균등한 기회를 누구에게나 줄 수 있어야 한다는데서 功利主義와 相通하는 점이 있으나, 功利主義와 틀리는 점은 人間이 단순히 個人的 利益과 滿足만을 추구하는 動物이 아니라 社會組織에 맞는 道德的 規範 안에서 서로의 幸福을 위해 協同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뒤르켕에 의하면 集團的 規範과 個人的 幸福이 균형을 이루며 동시에 존재할 수 있게 하는데는 道德的 個人主義가 바로 새로운 產業社會의 유기적 연대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뒤르켕의 아노미 구체 책의 哲學的 基礎는 지나친 集團主義나 個人主義를 배격하고 個人的 道德的 自覺과 自律의 協調를 바탕으로 한 社會秩序와 規範이 形成되어야 한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社會의 規範과 統制는 個人的 自由의 전제조건이지 결코 장애물은 아니다. 이를 뒤집어 表現하면, 社會規範이 혼들리면 人間은 自由 또한 상실하게되고 目的과 方向을 잃은 無氣力한 存在가 되고 만다는 것이다. 따라서 뒤르켕이 말하는 아노미 상태란 社會秩序와 規範이 혼들리면서 人間이 社會으로서의 自由를 裕喪하게되는 狀態를 지적하는 것이다.

뒤르켕은 구체적으로 아노미의 해결책을 두 가지 측면에서 찾으려 했다. 첫째는 近代產業社會에서 國家의 役割이 무엇인가를 살피는데서 아노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고, 둘째로는 좀더 범위를 좁혀 教育을 통해 새 價值觀을 확립함으로써 펼경에는 아노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먼저 近代產業社會에서의 道德教育의 重要性을 뒤르켕은 그의 저서 道德教育(Moral Education)에서 잘 묘사하고 있는데, 教育者들이야말

로 젊은 世代에게 새시대에 맞는 새로운 思想과 價値觀을 심어 주어야 하는 重大한 使命을 맡은 자들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새로운 思想 또는 價値觀이란 위에서 지적한 道德的, 人道主義的 個人主義를 두고 말한다.

뒤르켕은 그의 道德教育論에서 象徵的 相互作用論(symbolic interactionism)을 바탕으로 한 人間主義的 社會學을 잘 전개하고 있는데, 社會와 道德은 人間의 自由로운 相互作用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일단 정립된 價値體系와 規範은 個個人의 마음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直接的이며 面接的인 相互交互作用이 가장 규칙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社會集團이 教育機關이라는 데서 그는 아노미의 구제책을 教育에서 찾으려 했다.

뒤르켕의 人間主義의이고 進步的인 思想은 그의 國家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社會의 人口가 증가하고, 都市化, 產業化에 따라 社會組織이 복잡해지면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유지하는데 國家의 役割이 擴大될 수 밖에 없다고 그는 일단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헤겔(Hegel)의 영향을 받은 觀念論者들은 國家의 個人에 대한 우월성을 지나치게 強調했다고 비판했다. 실은 國家의 원천이 市民社會(civil society)에 있고, 극도의 專制主義國家라 할지라도 그것의 바탕은 市民社會에 있기 때문에 市民의 存在를 완전히 무시하는 國家란 存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점을 功利主義者는 잘 인식하고 있는데, 그 반면 이들은 다른 쪽으로 극단적인 견해를 취해 國家가 不必要한 存在처럼 생각하고 個人的 절대적인 우위를 주장함으로써 國家와 나아가서는 社會自體의 存在를 부정하는 非現實的인 理論을 주장한다고 뒤르켕은 비판을 가한다. 그리고 이러한 功利主義思想家들은 近代史

의 발전과 더불어 國家의 權力과 役割이 점점 擴大되어 왔다는 歷史的 事實을 바로 보지 못했다고 그는 주장한다.

이처럼 뒤르켕은 兩極의 國家論을 부정하고, 그 中道의 입장은 國家의 役割과 權威의 行為은 個個人의 權利와 自由의 신장에 기초를 두어야 하고 이 둘은 서로 병행해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國家가 먼저 道德의 代行者(moral agent)의 역할을 취해야하고, 政府官僚들은 國民의 소리에 귀를 잘 기울여, 民衆의 뜻이 무엇이며, 그들을 代表하는 集團意識(collective consciousness)이 무엇인가를 항상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관리와 시민간의 相互交互作用은 빈번하고 직접일 수록 市民의 意思가 政策에 잘 반영이되고 國民統合을 가져오는 社會規範이 確固해진다. 새질서, 새 도덕의 정립을 위해 국가의 지도적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뒤르켕은 그의 저서 專門 職業人의 倫理와 市民道德(Professional Ethics and Civic Morals)에서 누차 강조하는데, 道德의 個人主義 대비 人道主義的 個人主義(humanistic individualism)를 기조로 하는 國民道德의 정립을 위해서는 民主主義的 政治過程에 依存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¹¹ 문제는 人口가 많고 社會構造가 복잡한 近代社會에서 直接民主主義가 不可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全國民과 國家間에 충분한 相互交互作用이 가능하고 의사소통이 잘 해결되느냐에 있다. 이에 대해서 뒤르켕은 첫째 國家業務에 종사하는 모든 官僚와 政治家들 사이에 충분한 相互交互作用과 情報交換이 있어야 하고, 둘째 國民들 간에 自由로운 意思交換이 可能해야 하고, 세째로 國家代表들과 國民들 간에 충분한 의사교환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分化와 統合의 經營原理

이상에서 기술한 뒤르켕의 社會思想은 現代經營學에서 「分化와 統合의 原則」으로 經營組織의 發展(organizational development)에 잘 반영되고 있으나¹², 뒤르켕의 國家主義的 社會分析은 오랫동안 實제의 組織經營이나 國家經營에 크게 적용되지 못했다. 뒤르켕 자신도 그의 지나친 巨視主義的 경향 때문에 末年에 가서는 아노미 구제책에 대해서 다소 悲觀主義的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따라서 社會統合에 관한 다른 社會學者들의 理論을 고찰함으로써 그의 巨視的 統合理論을 보강하지 않을 수 없었다.

社會組織의 統合理論을 가장 體系있게 정리한 古典的인 연구는 막스 베버(Max Weber)의 官僚主義論에서 찾을 수 있다. 베버에 의하면, 近代 西歐社會는 傳統的 權威(traditional authority)에 바탕을 둔 社會組織에서, 合理的, 法的 權威(rational-legal authority)에 기반을 두는 組織社會로 옮겨가는 과정기에 있다고 한다. 西歐社會의 合理主義化는 科學의 발달과 함께 加速的으로 進行되어 왔는데, 이러한 社會의 合理化는 官僚經營組織面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다.¹³ 물론 現代社會學이나 經營學에서 官僚組織(bureaucracy, bureaucratic organization)이란 말은 行政組織이나 機構만을 가르키는 어휘가 아니고, 또한 베버의 관료조직론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학자들에 의해 소개되고 논의되어 왔으니 자세한 고찰은 생략하겠으나, 그의 官僚組織은 네 가지 特性으로 要約할 수 있겠다. 첫째로, 理想的인 官僚組織(ideal-type bureaucracy)은 機能的 分化(functional differentiation)가 잘 이루어진 기구이다. 둘째

로, 관료조직은 權力의 分化(power differentiation)가 잘 이루어진 기구이다. 이상 지적한 機能의 分化 또는 專門化(specialization)와 權力의 分化는 관료조직의 構造的 特性을 나타내는데, 前者가 經濟(economy)와 効果(efficiency)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後者는 統合(integration)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官僚組織의 特徵은 公式的 節次(formal procedures)에 의한 經營이라는 점이고, 네 번째 特性은 普遍主義(universalism)라 하겠다. 지금 지적한 두 가지 성격은 經營過程과 관료조직의 밀바탕을 이루는 價值體系 내지 規範을 나타내는 것인데, 公式的 節次 또한 經濟와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면, 普遍主義의 規範은 누구나 公平하게 대함으로써 統合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상 지적한 베버의 官僚組織論은 微視的 社會分析이라는 점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응용성 있는 이론이라 하겠으나, 實제로는 뒤르켕의 巨視的 社會分析과 일맥 상통하는 점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두 학자의 社會理論은 分化와 統合의 원칙에서 合致되고, 또한 社會組織面에서 뿐만 아니라 조직의 밀바탕이 되는 價值體系와 規範面에서도 베버의 合理主義思想과 뒤르켕의 道德的 내지 人間主義的 個人主義와 서로 통하는 데가 많다. 그리고 뒤르켕이 觀念主義나 功利主義의 어느 극을 택하지 않고 이를 統合하려고 한 것처럼 베버 또한 이 두 가지의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고 中道的 立場에서 總體主義와 個人主義, 必然主義와 自由意志論을 統合하려고 노력했다.

또 하나의 유사점은 뒤르켕이 國家의 役割이 아노미 구제에 중요하다고 지적했으면서도 그의 말년에 가서 무엇인가 회의적인 견해를 표명했

던 것처럼, 베버 역시 지나친 官僚主義는 오히려 統合보다 分裂을 가져올 수도 있음을 우려했다. 지나친 合理主義와 너무 大型化한 官僚組織은 非人間的 과물로 등장할 수 있고, 人間의 自由를 박탈함으로서 필경 모든 人間이 無力해지고 不安해질 수 있다고 베버는 경고했다. 巨大한 組織 속에서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人間은 人間內在의 意味를 상실하게 되고, 불안하고 자신을 잃어가는 스스로의 부족함을 메ぐ기 위해 現代人이 더욱 더 外形的, 物質的 보상만을 추구하는 경향은 베버의 우려를 잘 뒷받침해 주고 있다.

III. 綜合的 社會發展과 문제점

70年代初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持續되어온 새마을 운동이 綜合的 社會發展의 성격을 띠면서 산업화, 도시화와 社會分化에 따른 混亂과 不均衡(예로서 都農間의 隔差)을 제거하고 社會統合, 즉 國民總和를 도모해 온 것은 世界의 關心을 집중시킬 정도로 成功的인 것으로 인정되어 왔다. 새마을 운동의 성공이 어디에 있느냐에 관한 원인분석은 많이 있지만, 위에서 논술한 뷔르켕의 社會理論과 베버의 經營theory를 바탕으로 평가하면 두 가지 要因을 찾아 낼 수 있다. 첫째 요인으로서 새마을運動의 구조적 특성을 들 수 있는데, 그것은 강력한 行政組織을 기반으로 해서 국가지도자와 行政관료들이 중대한 役割을 해 왔고, 地方의 영향력 있는 民間指導者를 잘 활용함으로써 官과 民의 調和와 協同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새마을 運動의 기조를 이루고 있는 價值觀, 즉 새마을 정신이 個人的 복리와 社會의 발전을 동시에 강조하고, 이 두 가지가 불가분의 관계임을 그 理念의 主軸으로 했다는데 특색이 있다. 다시 말해서 새마을 운동의 理

念的 바탕은 自助(self-reliance)와 協同(cooperation) 즉 個人主義와 集團主義는 동시에 추구되어야 한다는데 두고 있다. 이 두 가지 사상의 論理的 調和가 가능함은 이미 뷔르켕이 잘 지적했고, 실제로 번영과 안정을 동시에 향유하는 先進產業國家들은 自助와 協同을 적절히 조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간략하게 지적한 새마을 운동의 특징은 그 동안 成功的 要因으로 作用해 왔으나, 그렇다고 금후에도 위에서 지적한대로 해야 이 운동의 영속적인 성공과 발전을 기할 수 있다는 주장은 아니다. 어떠한 社會組織이나 社會運動을 막론하고 궁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이고 따라서 修正되어야 할 부분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社會運動의 초기에는 궁정적으로 공현하던 부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운동의 지속적 발전에 저해요소로 변하는 경우는 허다하다. 예를 들면, 새마을 운동이 그 초기단계에서 강력한 中央集權的인 行政조직을 바탕으로 해서 官主導型의 정부지원하에 실시되어야 했던 여건은 수긍이 가고, 또 그러한 전략이 성공적인 것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앞으로, 특히 80년대의 高度產業化한 市場經濟體制下에서 이러한 전략이 계속 成功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와 반성이 최근 학자들에 의해 거론되고 있다.¹⁴

문제는 分化해 가는 社會組織의 統合을 위해 官僚組織化에 의한 社會統制가 불가피한 점은 인정되나 統合을 위한 統制가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데 있다. 이의 해답을 한 번 더 뷔르켕의 사회이론과 베버의 경영이론을 비교함으로써 찾을 수 있는데, 이 두 사람의 意見을 종합하면, 社會構造의 층면에서는 中央에서 말단까지 그리고 밑에서 위에까지 의사소통과 정보교환이 잘 되도록

록 制度的인 장치가 잘 정비되어야 하겠고, 規範的 측면에서는 個人的 독자성과 주체성을 존중하는 人道主義에 입각해서 국가와 市民은 서로 協同하는 새로운 社會觀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國家가 個人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고, 個人이 國家에 우위할 수도 없다는 相互作用의 立場을 바탕으로 해서 산업화에 따르는 社會問題를 해결하고 社會發展을 꾀해야 하겠다.

〈參 考 文 獻〉

1. Richards, Cara E., *Man in Perspective; An Introduction to Cultural Anthropology*, New York: Random House, 1972.
2. Little, Roger W., "Buddy Relations and Combat Performance," in Morris Janowitz (ed.), *The New Military*, Russell Sage Foundation, 1964, pp. 195-219.
3. Murphy, H.B.M., Social Change and Mental Health, *Milbank Memorial Fund Quarterly* 39, 1961, pp. 385-445. Hughes, Charles C., "Psychological Dimensions of Social Change," in Joseph G. Finney (ed.), *Culture, Change, Mental Health and Poverty*, Lexington, Ky: University of Kentucky Press, 1969.
4. Smelser, Neil J., *Social Change in the Industrial Revolu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9; Balander, G., "Socio-Cultural Unbalance and Modernization in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in S.N. Eisenstadt (ed.) *Readings in Social Evolution and Development*, New York: Free Press, 1962.
5. Etjioni, Amitai, "Basic Human Needs, Alienation and Inauthentic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3, 1968, pp. 870-881;
6. Lystadt, Mary H., "Social Alienation: A Review of Current Literature," *The Sociological Quarterly*, 13, 1972, pp. 90-113;
7. Smelser, Neil J., "Mechanisms of Change and Adjustment of Changes," in W.E. Moore and B.F. Hoselitj (eds.) *Industrialization and Society*, Paris: Unesco, Mouton 1963.
8. Eisenstadt, S.N., *Modernization: Protest and Chang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66.
9. Nisbet, Robert A., *Social Change and Histo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9.
10. Durkheim, Emile, *The Division of Labor in Society*, New York: Free Press, 1964.
11. Durkheim, Emile, *Suicide*, New York: Free Press, 1966.
12. Durkheim, Emile, *Moral Education*, New York: Free Press, 1973.
13. Durkheim, Emile, *Professional Ethics and Civic Morals*, New York: Free Press, 1958.
14. Lawrence, P.R. and J.W. Lorsch, *Developing Organizations: Diagnosis and Action*, Reading, Mass: Addison Wesley Publishing Company, 1969.
15. Weber, Max, "Basic Sociological Terms" and "Bureaucracy" in G. Roth and C. Wittich (eds.), *Economy and Society: An Outline of Interpretive Sociology*, New York: Bedminster Press, 1968.
16. 許範, "80년대 새마을 운동을 위한 地方行政", 80년대 새마을운동과 사회개발에 관한 세미나, 내무부/UNICEF, 1979.